

2017년 제1회 방문학자 포럼

1. 중국 과학기술단지의 혁신 효율성(Innovation Efficiency) 평가
2. 중국 공업화 발전 단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3. 남아시아 지역의 산업경쟁력 분석
4. 글로벌 가치사슬에 기반한 글로벌화 동향과 아시아 협력

1. 중국 과학기술단지의 혁신 효율성(Innovation Efficiency) 평가 —시간지연 효과(Time Lag Effect) 기반 분석

베이징 항공우주대학교 천상동(陈向东) 교수

- 중국의 과학기술단지(科技园区)는 첨단기술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클러스터와 시범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단지의 혁신 효율성에 대한 평가 필요성 증가
 - 중국은 1988년부터 과학기술단지를 설립하기 시작함. 2016년 8월 기준, 중국의 국가급 첨단기술산업단지(高新区)는 146개로 증가하였고, 2015년 25조 4,000억 위안의 매출 기록
- 과학기술단지의 혁신 효율성 평가 방법

- 중국에서는 과학기술단지 혁신 효율성 연구에 R&D 인구 수 · 취업인구 중 과학기술자의 비중 · R&D 예산 · 인큐베이터 수 등의 투입지표와 당해 특허신청 등록 수, 과학기술단지의 GDP, 신제품 매출액, 기술성 소득, 총요소생산성 등의 생산지표를 활용
- 그러나 혁신투입과 혁신성과 사이에 시간지연 효과가 존재하며, 혁신요소가 투입된 뒤 일정 기간 누적되어야 혁신적 성과로 전환됨. 따라서 과학기술단지 내 혁신투입에 대한 시간지연 효과를 측정하고, 상황에 맞게 혁신투입지표를 수정해야함. 그래야만 혁신투입의 실제 가치로 혁신 효율성 평가가 가능
- 혁신투입의 시간지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본투입과 인력투입은 과학기술 성과, 경제 사회 생산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고, 정책투입은 과학기술 성과와 경제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는 ① 과학기술단지 혁신 효율성 평가지표 시스템 확정, ② 과학기술단지 혁신투입 지표의 지연성(滞后性) 측정, ③ 과학기술단지의 과학기술 투입과 과학기술 생산의 상대적인 수준비교 등을 통해 과학기술단지의 혁신 효율성을 측정

□ 과학기술단지 혁신 효율성 평가지표 시스템 구축

- 혁신 효율성 지표와 관련해서 혁신투입은 자본투입, 인력투입, 정책투입, 물자투입으로 구성
- ① 자금은 혁신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으로 많은 자금투입은 과학기술단지 혁신 시스템의 빠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 ② 인력은 혁신의 기본적 요소이며, 인재 투입이 클수록 혁신 발생 가능성 증가 ③ 혁신 주도형 발전이 중국 과학기술 및 경제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부상함에 따라 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증가 ④ 물자투입이 클수록 혁신 활동이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증가
- 과학기술단지의 혁신 효율성 지표 선택에 있어 고려 사항
- [종합성] 지표 시스템은 다측면, 다차원적으로 과학기술단지의 혁신 효율성 현황을 나타내야 하며, 그중 자본투입, 인력투입, 정책투입, 물자투입 등 4개 요소로 혁신활동 투입을 분석하고, 과학기술 생산, 경제생산, 사회적 생산 등 3개 요소로 혁신 생산을 분석
- [대표성] 평가지표에서 국가 과학기술단지의 혁신 효율성을 위주로 하며,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객관성] 가능한 양적 지표를 사용하고, 간단 명료한 계산 방법을 사용함. 데이터는 통계적 타당성 특징을 갖추어야만 유효성 확보 가능
- [일관성] 일정 시간 내의 데이터를 지표 내용으로 하여 일관성 유지

□ 중국 과학기술단지 혁신투입 지표의 지연성 측정

- 2008년 이전 국무원에서 비준한 53개 국가급 하이테크산업단지(高新区)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성과 관련 지표의 대다수는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영향이 적은 반면 경제투입 지표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¹⁾
- 경제생산 지표를 보면 생산성 기술혁신 투입지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과학기술 혁신투입 지표는

1) 지표 데이터는 ‘중국 핫볼 통계연감’, ‘국가 하이테크산업단지 기업통계 보고서’ 및 ‘하이테크산업단지 종합통계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활용 혹은 계산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약하고 이러한 지표는 긴 시간의 지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생산 지표를 보면 'GDP 대비 R&D 지출 비중'만이 사회생산에 대해 비교적 긴 시간동안 시간지연 효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간지연 효과를 적용한 중국 과학기술단지의 혁신 효율성 분석

- 대표적인 과학기술 투입지표(과학기술단지의 GDP 대비 R&D지출 비중, 지역의 과학기술자가 종사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5개 지표)를 통해 과학기술 투입산출 관계를 분석한 결과, 베이징(北京), 선전(深圳), 광저우(广州), 창춘(长春) 등 일부 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지는 투입 대비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표본조사 지역의 과학기술단지 과학기술 투입과 성과는 관련 평가지표에 기반한 연구결과만 나타냈기 때문에 일정 제약이 있음.

□ 과학기술단지 혁신성과를 위해 각종 혁신투입과 혁신성과의 상관성, 지연성 및 혁신 성과와 투입의 상대적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 도출

- 과학기술단지에서 창출된 과학기술 성과는 반드시 사업화를 추진해야 생산력 향상 및 지역경제성장 견인 등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
- 과학기술단지의 각종 혁신투입과 혁신성과 사이에 시간지연이 존재하므로 과학기술단지의 혁신 산출 효율 향상을 위해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효과가 누적되어야 과학기술단지 혁신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

2. 중국 공업화 발전단계 및 지속가능한 공업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궈차오셴(郭陶先) 연구원

□ 중국의 공업화 발전단계

1) 공업화 단계 계산방법

- 공업화 단계 계산방법은 학자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미국 경제학자 체너리(H.B. Chenery)는 1인당 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영국 경제학자 클라크(Colin Clark)는 고용창출 구조에 근거해 계산하였음.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GDP 대비 1차/2차/3차 산업 비중을 바탕으로 하는 계산법을 제시한 바 있음.

- UNIDO는 국민소득 대비 공업 부가가치 비중에 따라 공업화 발전 수준을 평가하며, 해당 비중이 20% 미만일 경우 농업경제 단계, 20%~40%일 경우 공업 초기단계, 40% 이상일 경우 공업 가속화 단계로 구분함.
- 중국의 천자구이(陈佳贵), 황후이췌(黄慧群) 등은 경제 발전수준, 산업구조, 공업구조, 고용창출 구조와 공간구조 등 측면에서 1인당 GDP, 1차/2차/3차 산업 비중, 1차 산업과 2차 산업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도시 인구 비중,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중을 활용해 공업화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와 방법을 개발함.

2) 시기별 공업화 수준 전망

- 중국의 공업화는 시기별로 ① 1995년 공업화 초기발전 단계, ② 2000년 공업화 초기 단계 후반기, ③ 2005년 공업화 중기단계, ④ 2010년 공업화 후기단계에 진입하였으며, ⑤ 2015년에 공업화 후기단계의 후반기에 진입하였음.
- 중국은 2020년에 공업화 지수가 100에 육박하고, 1인당 GDP와 1·2·3차 산업 비중이 포스트 공업화 단계의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²⁾
- 2030년에는 중국 공업화 수준 종합지수가 100을 초과하여 전면적인 공업화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중국의 공업화 발전단계 별 지수 변화

연도 단계		1995	2000	2005	2010	2015
		공업화 시작 전 단계 (1)	2	1	0	0
공업화 초기단계 (2)	합계	25	23	21	3	0
	초반	21	17	6	0	0
	후반	4	6	15	3	0
공업화 중기단계 (3)	합계	1	4	4	16	12
	초반	0	4	2	5	6
	후반	1	0	2	11	6
공업화 후기단계 (4)	합계	2	3	6	10	16
	초기	2	2	3	6	9
	후기	0	1	3	4	7
포스트 공업화단계 (5)		0	0	0	2	3

□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2030年可持续发展议程)'의 공업 발전 목표

- UN의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에서는 인프라 건설, 포용성 성장 촉진, 친환경 산업 촉진, 공업의 과학기술 혁신 장려, 공업 정보화 발전 추진, 국제협력을 통한 후진국의 공업낙후 현황 개선 등 6개의 지속가능한 공업화 핵심목표를 제시함.

※ 6대 목표 ① 높은 퀄리티와 신뢰성, 지속성,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가진 인프라 구축 ② 지속가능한 공업화를 추진해

2) 1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공업화 목표 수준

2030년까지 각국별로 고용창출과 GDP에서 차지하는 공업비중을 대폭 향상 ③ 중소기업과 기타 기업의 발전 촉진 ④ 2030년까지 인프라 시설을 고도화하고, 친환경 기술을 통해 공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자원 사용효율 개선 ⑤ 개도국 중심으로 공업부문 과학기술능력 향상 ⑥ 공업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개도국과 후진국의 빈곤탈퇴 지원

□ 중국의 지속가능한 공업 발전을 위한 7대 과제

- ① 혁신위주 성장 견지, 공업강국 전략 실시 ② 합리적인 인프라 시설 투자, 인프라 시설 향상 ③ 공업의 녹색성장 추진 ④ 정보화, 공업화의 융합 촉진, 스마트 제조 본격 추진 ⑤ 공업화 지속 추진, '지나치게 빠른 탈공업화'의 발생 방지 ⑥ '대중창업, 만중혁신' 추진, 중소기업 발전 촉진 ⑦ 조화로운 지역발전 촉진, 공업 발전공간 확장 ⑧ '일대일로' 건설 추진, 공업의 국제생산 협력 추진

3. 남아시아 지역의 산업경쟁력 분석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후원룡(胡文龙) 부연구원

□ 남아시아 지역 산업경쟁력 현황

- 국별 국제시장 점유율(IMS)로 볼 때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상품이 비교적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은 10여 가지 제품이 비교우위가 있음임.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네팔, 몰디브, 부탄 등은 제품 경쟁력이 매우 낮은 편임.
- 제품별 무역 경쟁력 지수(TCI)에서 0.5를 초과한 제품 수는 인도(62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파키스탄(37개), 스리랑카(24개), 방글라데시(22개), 네팔(17개), 아프가니스탄과 부탄(각 14개), 몰디브(5개) 순으로 나타났음.
- 현시(대칭적) 비교우위 지수(RCA/RSCA)가 1(0)을 상회한 제품 수는 인도(92개)가 가장 많고 이어 파키스탄(49개), 네팔(47개), 스리랑카(45개), 방글라데시(25개), 아프가니스탄과 부탄(각 24개), 몰디브(6개) 순으로 나타났음.
- 남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은 쌀, 수산물, 슝, 삼(麻) 등 1차 농산품과 진주, 보석 등 광산품 및 경공업제품 위주임.

표 1. 2015년 남아시아 국별 국제시장점유율(IMS)이 높은 제품 품목 수 비교

제품 품목 수	연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IMS ≥ 10%	2000	2	0	1	1	0	0	0	0
	2005	4	1	1	1	0	0	0	0

	2010	9	1	1	2	0	0	0	0
	2015	13	0	2	2	0	0	0	0
IMS ≥ 5%	2000	14	2	1	2	0	0	0	0
	2005	15	4	1	2	0	0	0	0
	2010	27	3	3	2	0	0	0	0
	2015	31	4	4	2	0	0	0	0
IMS ≥ 2%	2000	37	8	3	5	0	0	0	0
	2005	46	9	4	4	0	0	0	0
	2010	66	5	5	4	0	0	0	0
	2015	82	8	6	4	0	0	0	0

표 2. 남아시아 각국의 제품 무역경쟁력지수(TCI) 분포 및 품목수

제품 품목 수	연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TCI ≥ 0.5	2000	79	41	21	35	8	23	23	7
	2005	72	42	25	35	9	20	6	8
	2010	70	39	25	33	7	21	18	8
	2015	62	37	22	24	5	17	14	14
TCI ≤ -0.5	2000	74	134	125	169	122	51	97	4
	2005	72	148	164	163	140	92	64	6
	2010	73	160	173	156	135	146	77	6
	2015	69	160	174	162	129	128	78	9

□ 남아시아의 주요 경제무역 파트너 및 무역구조 분석

1) 국가별 수출대상국 및 주요 수출제품

- 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영국, 중국, 독일, 스페인 등 23개 국가(지역)임.(2015년 기준)
- 최대 수출국 인도는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수출 상위 10개 국가에 대해 약 55억 달러를 수출하며, 이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각 6억 달러, 스리랑카가 약 2억 달러로 나타남.
- 인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15.3%)과 아랍에미리트(11.4%), 파키스탄은 미국(16.7%)과 중국(9.0%), 방글라데시는 미국(21.0%)과 독일(15.5%), 영국(9.5%), 스리랑카는 미국(26.8%)과 영국(9.8%)으로 나타났음.
- 국별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입쌀, 생선(신선, 냉동, 냉장), 차(茶)와 그 가공품, 갑골동물과 연체동물, 과일과 야채 등 농산품 및 가공제품, 석회와 시멘트 등 건축자재, 석유제품, 진주보석, 황금, 방직의류와 면직물, 신발, 섬유, 가죽, 카펫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제품, 선박, 배(공기 부양선과 플로팅 구조 포함), 약품, 여객운송 차량 등 소수 첨단기술과 자본, 인재 집약형 제품이 있음.

2) 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수입제품

- 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수입 품목은 연료용 목재와 목탄, 철도침목 등 기초원료, 윤활제, 고체 식물성 기름, 동물지방 등 동식물 기름 및 지방, 약품, 비료제품, 기타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 종이, 섬유, 면직물, 인조직물, 견직물 등 장식품과 석회와 시멘트 등 건축재료, 진주보석, 잉곳, 평판 압연철강, 은, 백금 등 원재료별 공업품, 피스톤식 내연기관 및 부품 등이 있음.
-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총 14개임.

□ 중국과 남아시아지역의 경제무역 협력 현황 및 주요 문제점

1) 경제무역 협력 현황

- [무역액 증가] 중국과 남아시아 8개 국가의 무역총액은 2000년 56억 8,000만 달러에서 2015년 1,113억 달러로 총 19.6배 증가
- 중국의 남아시아 지역 수출 총액은 2000년 37억 9,000만 달러에서 2015년 943억 3,000만 달러로 총 24.8배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2000년 18억 9,000만 달러에서 2015년 169억 7,000만 달러로 약 9배 증가
- [직접투자 증가] 인프라 건설 및 투자 수요가 큰 남아시아 지역은 중국 해외도급공사와 협력의 중요한 시장임. 2015년 중국기업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신규 체결한 발전소, 통신, 도로건설 등의 공사 계약액은 212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82.1% 증가하였음.
- 2015년 기준 중국이 남아시아 지역에 대해 직접 투자한 금액은 총 122억 9,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FTA 추진] 중국은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고, 네팔과 FTA 타당성 연구 중이며, 스리랑카, 몰디브와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음.
- [협력단지 건설] 아울러 중국기업은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협력단지를 건설 중임. 특히 이미 건설된 파키스탄 하이얼(Haier)-루바(Ruba) 경제무역협력구는 현지 조세와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2) 중국과 남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주요 문제점

- [증인도 상호 불신] 중국과 인도 사이의 상호 불신은 남아시아-중국 간의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벽임.
- [경제발전 불균형] 남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는데, 이는 남아시아지역의 경제수준이 낙후되었기 때문임.
- 중국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기록하는 무역흑자 규모가 2000~2015년 총 40.6배 증가하면서 양자간 무역마찰이 심화됨.
- [지역경제 협력의 기초 취약] 남아시아 국가의 주요 산업은 주로 농업으로 경제구조가 단일하고, 유사성이 높은 편임. 또한 지역 내 공업 기반이 취약하고 각 국 간의 경제 상호보완성도 약함.

□ 중국과 남아시아국가 간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방안

1) 중국-인도 관계

- 중국과 인도는 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서로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토대로 하여 협력해야 지역의 평화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구조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2) 중국-남아시아 국가 간 FTA와 협력단지 건설 가속화

- 정부 간 고위급 정례 협상 채널 구축을 통해 중국과 남아시아국가 간 FTA를 촉진하고 협력단지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남아시아 국가의 산업협력 토대를 마련함.

3) 중국과 남아시아국가의 육상무역 네트워크 구축

- 중국 신장(新疆)-파키스탄 티벳(西藏)-부탄 티벳-네팔 등 교통시스템의 상호 연결을 통해 무역 운송비용을 절감시킴.

4) 무역방식과 무역구조 고도화와 양자간 무역의 균형적 발전 실현

- 양자간 무역불균형을 감소하기 위해 남아시아국가는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기존 각국의 수출가공단지의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며 정부기관의 업무처리를 간소화하여 적극적으로 중국자금을 도입하여 현지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문제를 개선해야 함.
- 중국은 남아시아국가에 대한 투자, 특히 공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을 이뤄야 함. 특히 중국은 남아시아국가의 농업 현대화, 에너지, 전자통신, 도로와 철도(고속열차, 노후 철도개조 등 포함), 터널 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

5) 중국과 남아시아 국가 간 산업협력 유망 분야

표 3. 국가별 산업협력 유망 분야 정리

국가	분야
인도	- 농산품, 광산품, 의약품, IT제품, 진주보석, 방직품 등 - 전기, 전자통신, 수처리 등 인프라 건설 분야 및 식품가공, 하드웨어, 공사용 기계설비 등
파키스탄	- 항구건설, 에너지, 교통, 인프라(도로, 철도, 석유와 가스, 광케이블) 등 분야
방글라데시	- 인프라시설, 생산협력, 에너지전력, 교통운송, 정보통신, 농업 등
아프가니스탄	- 자원과 에너지개발, 인프라시설 건설, 공사와 농업 등
네팔	- 농업관개, 수리수전, 도로철도, 통신 등 인프라시설 분야
몰디브	- 간척사업, 오수처리, 대교건설, 오락, 미디어, 의료시설, 주택 등 인프라시설 건설 분야
스리랑카	- 항구 산업단지 건설, 농업, 관광, 의약, 인프라시설, 에너지, 제조업, 통신, 물류, 금융 등
부탄	- 관광, 농업 과학기술 교류, 농업설비, 동물유전자 육종 등

4. 글로벌 가치사슬에 기반한 글로벌화 동향과 아시아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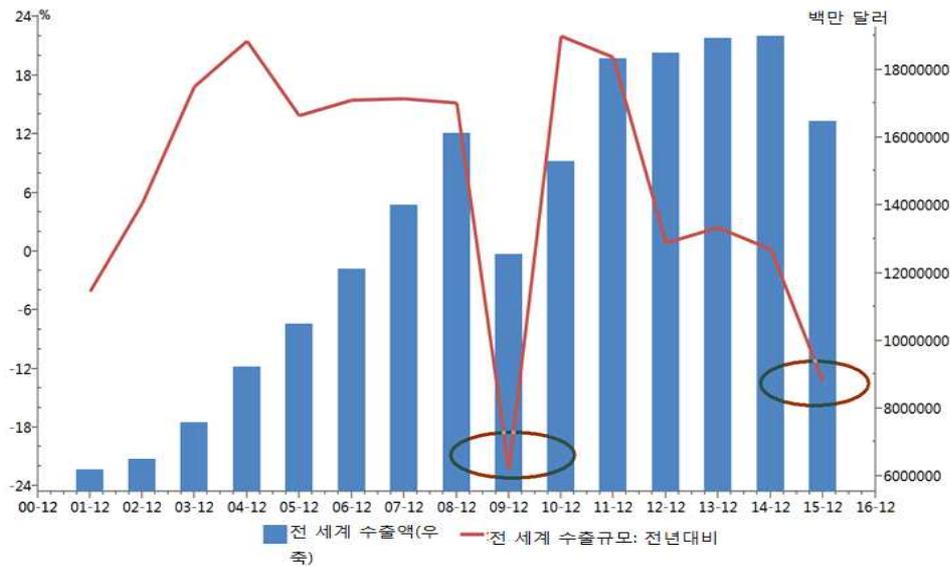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장모난(张莱楠) 연구원

가. 뉴노멀: 국제무역 증가속도 < 경제 성장속도

□ 국제무역은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속도 보다 약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여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

- 글로벌 무역증가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무역 증가율은 1990~2007년 6.9%에서 2008~2015년 3.1%로 감소했으며, 2016년에는 1.2%로 다시 감소
- 국제무역 증가 둔화는 과거 1975년, 1982년, 1983년, 2001년, 2009년에 각각 나타난바 있으나 이번에는 4년째 3% 미만 기록

그림 1. 전 세계 수출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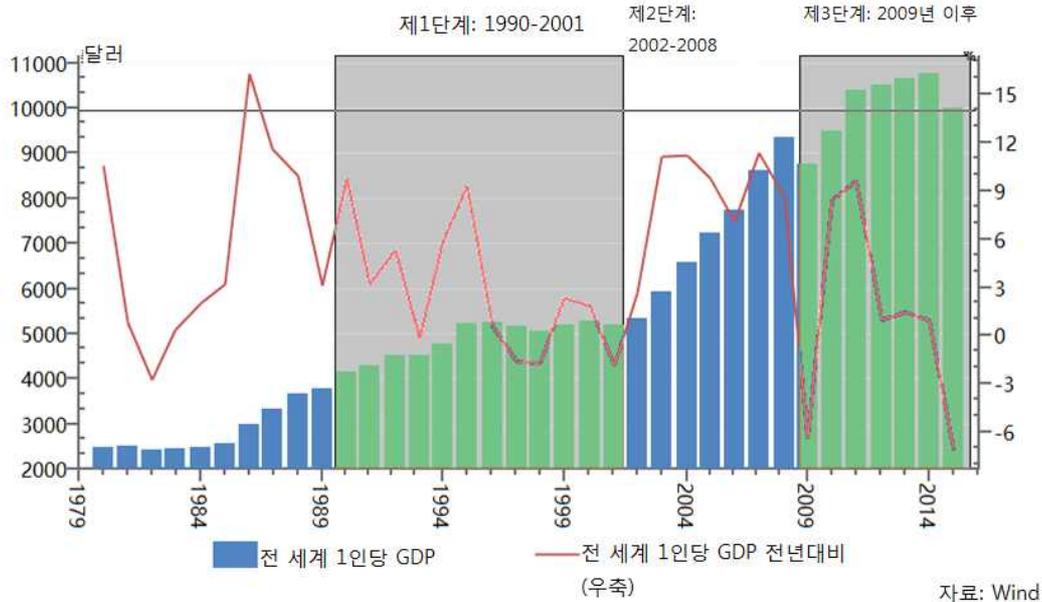


나. 국제무역 증가속도 둔화 원인

□ 경제 글로벌화의 정체기 진입

- 경제의 글로벌화는 ① 1990~2001년 전 세계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 2.7% 단계, ② 2002~2008년 전 세계 1인당 GDP 증가율 8.8% 단계, ③ 2009~2015년 전 세계 1인당 GDP 증가율이 1.1%로 감소한 3단계로 구분

그림 2. 경제 글로벌화의 시기별 전 세계 1인당 GDP 추이



□ FTA와 국제무역 거버넌스의 ‘분산화’

- 국제무역 투자규칙 협상 플랫폼이 WTO 다자무역 시스템에서 지역무역협정(RTAs)로 전환
- 전 세계적으로 400여개 RTA가 구축되었으며, 양국 혹은 다국간 교차적으로 연결이 늘어나면서 각종 조항과 규칙이 상이해짐. 이러한 ‘파스타 볼’ 식의 RTA로 인해 상품의 유통 복잡성을 증대시킴. 특히 RTA의 발전은 ‘경쟁적 지역 집단’의 형성을 초래하며, 무역 이전효과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업과 협력의 중단을 야기함.

□ 글로벌 가치사슬 재구축, 구조 재균형 및 중국의 역할

-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 및 주요특징
- 지난 30년 간 경제의 글로벌화로 가치사슬의 형성과 발전이 이뤄졌으며, 이는 글로벌화의 심층적 통합을 가져옴.
-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의 국가간 이동이 3차례 진행되었으며, 제조업의 다국적 투자, 기술협력, 계약생산 등을 통해 글로벌 생산 발전이 촉진됨.
- 특히 다국적 회사의 글로벌 통합과 기업내부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은 경제 글로벌화가 생산, 제조, 유통 분야에서의 중점적인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토대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됨.
- 경제 글로벌화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후 전 세계적으로 산업간 분업—산업 내 분업—수직형 산업 내 분업—수직형 제품 내 분업 등 추세로 변화하였음.
- ‘글로벌 가치사슬’은 ① 최종 완성품이 2개 혹은 2개 이상 연속된 단계의 생산을 거치고, ② 2개 혹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서로 다른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③ 최소 1개 국가가 생산과정에서 수입품을 사용하는 등 3가지 현저한 특징을 가짐.
- 가치사슬에 기반한 무역 모델하에서 글로벌 경제시스템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뉘서 구분하는 것보다 글로벌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뉘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함.

□ 중간제품 무역이 국제무역 증가에 대한 기여와 지역구조 특징

- 중간제품 무역은 국제무역액의 2/3을 차지함. 특히 신흥국과 개도국의 부가가치 무역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신흥국과 개도국이 가치사슬에 심층적으로 참여하고 고도화를 추진한 결과임.
- 글로벌 가치사슬은 북미, 유럽,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주로 형성되었으며, 동 지역별로 지역내부 가치사슬을 형성하였음.
- 아태지역 내의 무역 증가속도는 국제무역의 2배로 NAFTA와 EU 내 무역 증가속도를 훨씬 초월하였음. 아울러 아태지역의 가치사슬(특히 동아시아 가치사슬)은 국제무역 순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슬 중의 하나이고 전 세계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임.

□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 노드로 부상

- 현재 중국은 '중간재 수입 → 가공조립 → 재수출(주로 유럽, 미국)'의 무역 구조임. WTO 가입 후 중국의 중간재 무역규모는 소비재와 자본재보다 빠르게 확대됨.
- 2009년부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수출국이 되었음. 중국의 수출액은 국제무역 총액의 11% 내외에 달함.
- 2011년 중국은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부가가치(1조 5,744억 달러)액을 기록한 국가가 되었음.
- 높은 무역 부가가치가 높은 무역 이익분배를 의미하지 않음. 예를 들어 2011년 EU, 미국, 일본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85.3%, 85.1%, 82.9%이고 중국은 78.2%였지만 중국이 수출한 완성품에 내포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은 기타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에 달함.

□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구축 및 중국의 역할

- 2005년 아시아(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핵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은 일본, 한국,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무역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로 부상함.
- 국제무역 네트워크에서 아시아 가치사슬의 발전추이가 뚜렷해지면서 2013년 지역 내 무역비중이 67%로 증가함.
- 중간재 무역 발전 추이를 보면 동아시아 각국 별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유럽과 미국보다 높아짐.
- 중국의 수출총액 중에서 아시아 국가가 제공한 중간재 가치 비중이 대폭 향상됨.
- 2010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대만, EU, 호주가 연결되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가장 중요한 노드와 중간재 무역 핵심으로 부상함.

□ 글로벌 가치사슬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글로벌화 추진

- 중국은 새로운 글로벌화 추진 및 글로벌 가치사슬 재구축을 통해 국가의 산업구조 경쟁력을 전면 향상시켜야 함. 아울러 새로운 거버넌스 마인드와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글로벌화 순수의 구조를 창조해야 함.

- 글로벌 가치사슬을 감안한 국제 경제무역 투자규칙을 마련해야 함. 기존 WTO의 규칙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적고 주로 FTA 규칙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감안하였음. 하지만 FTA 회원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 무역투자 규칙을 다자협력 차원으로 확대해야 함.
- FTAAP를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경제무역 규칙과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추진함. 중국은 FTAAP를 아태 지역 무역 통합의 중요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의 공감을 얻고 있음.
- 호주, 중국, 한국, 뉴질랜드 등 4개국 공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품무역 자유화, 상품무역 자유화+무역원활화, 관세철폐+무역원활화+서비스무역 자유화 등 3가지 상황에서 FTAAP를 통해 APEC 경제국의 GDP는 각각 0.55%, 2.26%, 2.3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이 FTAAP를 통해 얻는 수익은 RCEP의 2배로 예상되며, 미국은 FTAAP를 통해 얻는 수익이 TPP의 2.5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아시아 가치사슬 협력은 FTAAP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함.

/끝/.